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상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나' 쏙 빠지면 그대로 여여한 자리

엷타인지 귀가 잘 안들려요

문 태어날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크면서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한마음 주인공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전생에 못할 짓을 많이 해서 귀가 어두운지 답답해서 무당집에 가서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전생에 관한 책을 모두 사보아도 모르겠고 스님들의 좋은 책 많이 읽어보아도 답답합니다.

클 때나 지금이나 사는 것은 어렵고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남의 말소리를 금방 못 듣고 답답하니, 자꾸만 사주가 알고 싶어서 점을 보러 갑니다. 대우어 어떤 분이 기치로 귀신도 물리치고 병도 고치고 하는데 저를 보고 영가의 병이라며 귀가 잘 들리게 해 준다고 백만원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줬습니다. 그러더니 또 20만원, 50만원 가져오면 낫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어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돈을 가져와야 한다면 절에도 못 가게 하고 자기가 믿으라면서. 그래서 옛날 어느 조사께서 내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요 내게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뺏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업인지 아니면 기도로써 풀 수 있을런지요.

답 내 집이 빈 집이라면 온갖 짐승이 드나들고 풀벌레가 와서 살고 집이 엉망이 되었지요.

그때 옛날 어느 조사께서 내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요 내게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뺏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딱 모양으로 바깥으로 빌고 누가 뭐라고 거기에 매달려 의지한다면 그게 빈 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절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안으로 들어오고 안으로 믿고 안으로 놓고 기도를 해도 해야 바깥으로 무당에 구달리고 귀신에 매달린다면 기껏해야 무당이나 귀신 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공부를 하려면 고깃덩이 내 모습도 믿지 말고 내 자신을 믿고 법을 믿어 직접 행하고 맛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굴 믿고 누구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또 전생의 업이 어찌나 하시는데 전생의 업이라는 것도 지금 내가 다 짊어지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녹이면 지금 내가 스스로 녹여야지 누가? 남이 기도로 풀어준다고요? 정신차려야 합니다. 나무는 제 뿌리를 믿을 뿐이지 아니 잎새나 가지가 목이 마르는데 옆에 단 나무 뿌리를 보고 '물 좀 올려 보내줘' 이란다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제 뿌리에다 대고 그래야

**“잎새·가지 목 마르는데
만 나무뿌리 보고
물 좀 올려 달라면
그게 도움 됩니까”**

물도 올려주고 그래서 푸르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명이 끊어질 않습니다

문 큰스님께 배우고 싶은 것은 참선 방법입니다. 소생은 어떤 일인지 정신을 가다듬고 앉아서 참선 공부를 하려고 애써 노력해도 사실이 단 1, 2초 사이도 없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사회 만류가 연속적으로 정신을 빼깁니다. 어떻게 하여야 무심으로 참선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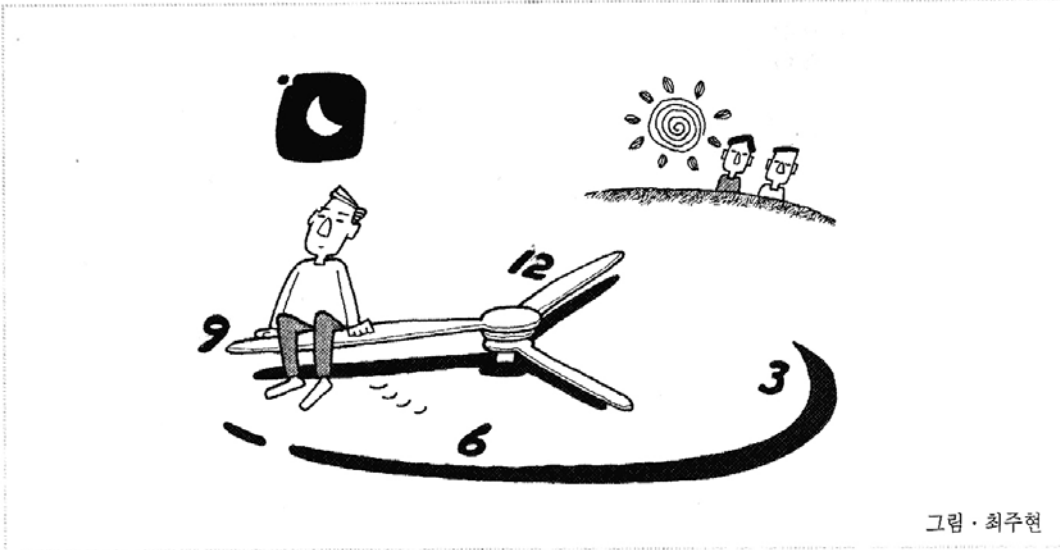
답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송장 이계요? 억지로 무심이 되었다 해서 무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심이란 목석같이 되는 게 무심도 아닙니다.

모든게 찰나찰나 나투고 나 또한 고정되게 어느 것 할 때의 나만을 고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본래가 공이고 무심인 겁니다. 다만 모두들 고정되게 보고 고정되게 생각하고 '나', '내' 것이다 하나까 무심을 말하는 겁니다.

'나' 하나 쏙 빠지면 그대로 여여하니 일심이 무심이고 그렇지요. 그러니 자리 들고 앉아서 이제부터 무심이 되어야겠다 해서 백날가도 소식이 없을 겁니다. 그것 초차도 놓고 가세요. 본래 놓고 가는 것이니 따르니 놓는다고 할 것도 없지만 그걸 모르니 놓고 또 놓으라고 하는 것 뿐이지만 말입니다.

식당운영상 동물을 잡는데

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동물이 들어옵니다.



그림·최주현

“한마음으로 지극하게 돌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싸안으면 그것으로 천도”

살상이 불가피한지요. 그런데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스님 말씀 가운데 세균성·업보성·윤회성·영계성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매일 천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 나무가 아직 튼튼치 못하니 이것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답 왜 스스로 제 나무가 튼튼치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이 튼튼하면 내 나무도 뿌리가 튼튼할 것이요, 내 믿음이 약하면 내 나무의 뿌리도 약하겠지요.

그러나 못나도 내 어머니요 잘나도 내 어머니가 제일이듯이 내 믿음만큼 뿌리는 튼튼하다 약하다 없이 내 믿음만큼 힘을 배려해 줍니다. 말하자면 전력은 얼마든지 공급되는데 끌어 쓰는 사람에 따라 크게 쓰기도 하고 작게 쓰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한마음으로 지극하게 돌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싸안으면 그것으로 천도가 됩니다.

공연스레 이래가지고 천도가 될까 안 될까 하시면 서류를 냈다 했다 하는 것과 같이 결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외삼촌이 암으로 위독합니다

문 안녕하십니까. 큰스님. 아직 한마음선원에 가보지 못했지만 주변에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비디오투로 법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저희 외삼촌께서 백혈병으로 많이 아프십니다. 사실은 이제 암치료를 받으시다가 위독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삼촌을 위해 제가 해드릴 것이 없어서 가끔씩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니 주변분들은 어느새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속으로 삼촌을 살려주소서 하면서 제가 제 할 도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혹 이제는 저도 차리리 편안히 가십시오

시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지요?
누구나 떠나야 하는 것이겠지만 주위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또 아직 어린 사촌 동생들에게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걸까요?

답 관세음보살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빌면 그건 타락신앙이 되구요 공덕도 없습니다.
비디오를 보셨더니 길게 말 안해도 조금은 아신테지요.

다시 말하자면 관세음보살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마음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형성시키고 끌고 다니는 주인, 주인공 또는 참나라고 해도 되지만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도 있고 지장보살도 있고 약사여래도 있고 칠성, 신중도 있습니다. 그러니 밖으로 찾지 마시라 안으로 내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기면서 '주인공! আমি 듣게 한 것도 거기로 낫게 하는 것도 거기이니 죽어든 살리든 주인공에 맡기리다'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주인공, 삼촌의 주인공이 본래 한마음이니 간절하면

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어든 살리든 철두철명하게 믿고 맡겼을 때 이 육신, 심부름꾼에 불과한 육신을 살릴 거면 살릴 것이고 그만 옷을 벗고자 하면 벗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이란 누구든지 한철 살다가는 것인데 턱 놓고 믿는다면 주어진 배역 맡았다가 때가 되면 훌훌 털고 무대에서 내려올 것이고, 내려 왔으면 또 다들 배역이 주어질 테니까요.

삼촌에게도 그런 말 해드리고 본인도 굳게 굳게 그렇게 한다면 한마음이 서로 통해 마치 전깃줄과 줄을 이어 불이 들어오게 하듯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라는 마음까지도 다 맡겨 놓는 게 우선입니다.

생활에 자신감 잃었어요

문 저는 불교신도는 아니지만 불교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를 통해 드리고 싶은 질문은 불교에 관한 것이리라 보다 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일종의 상담입니다.

시춘기가 지난 후 주위 친구들의 영향으로 진리나 도에 관심을 가졌고 나름대로 높은 꿈과 이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실의 생활면에서 너무 무능하고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이란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원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하고 싶은 데 맘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자신을 잃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장 현실의 생활면에서 너무 무능하고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이란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원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하고 싶은 데 맘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자신을 잃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퇴하는 듯한 생활을 돌이키고 싶을 때 어떻게해야 하는지 조언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 일체를 내가 한다는 그 생각, 잘 했다 못했다는 그 생각, 나로소이다,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놓아주세요. 말하자면 일거일동에서 한번 '나'라는 생각이 쏙 빠진채로 임해보시란 애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생활하는 중에 일일이 '내가 한다'는 생각을 따로 챙기지 않고도 배고프면 밥 찾아먹고 목 마르면 물 찾아 먹고 졸리면 잠자고, 부모가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그냥 응대하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밖에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철을 원하는 중·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97

이 꽃 저 꽃 마음대로 골라 꽃꽂이 하듯이

어느 것 하나 이심전심으로 말 안 들고 말 안 하는 게 없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처님을 상징으로 모시고 한자리에 앉았을 때 모두 부처님에게로 합쳐지기도 하고 부처님이 내게로 합쳐지기도 한다. 또 모셔 놓은 영가의 위패를 내 마음에서 돌 아나게 한마음으로 돌린다면 영단을 치워 버릴 수도 있고 목신·지신을 돌 아난 마음에서 돌 아난 나무를 자르거나 산을 헐어내도 아무 일이 없게 된다. 이러한 도리는 예를 들어 기계에도 통하니 내 마음을 기계로 합쳐 주면 나도 기계가 될 것이고 기계를 내 마음으로 한데 합쳐 돌 아나고 볼 때는 돌이 아닌 까닭에 무난히 작업이 잘될 것이다.

우주 정거장을 세운다, 미사일을 띄운다 할 때에 물질이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종합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세가 나는 것도 마음이 있기에 난다. 꽃도 마음이 있기에 피고 바람도 마음이 있기에 술술 분다. 일체 만물의 근원을 알면 마음으로 상응하고 감응할 수 있다. 고로 이 천지가 다 손 안에 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 산 사람, 유생 무생이 둘이

아니고 풀 한 포기에도 불성이 있으니 이를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하나가 만이 될 수 있고 만이 하나로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백이 일천을 당하고 오만이 십만을 상대할 수 있는 이치가 있다. 마음의 손자 병법인 것이다.

기적이란 없다. 모든 중생이 본래로 전지 전능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물러서 못하고 물러서지 못 할 뿐이지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병이 고쳐지고 안되던 일이 좀 이루어졌다 해서 능력을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 말라. 좋은 소견에 불과하다. 기적은 없다. 모든 생명에게는 완전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기적이 당연한 것이요, 유한하게 산다는 것이 오히려 기이한 것이다. 기적은 없다. 오히려 자유 자재하지 못하는 중생이 대다수이기에 기적이 특별하게 보일 뿐인 것이다. 꽃이 피어 아름다우니 기적이요, 새가 지저귀니 기적이요.

전체 생명들을 다 합쳐서 꽃꽂이를 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 이 꽃 저 꽃을 마음대로 골라 꽃꽂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마음의 꽃들을 한데 모아 한번 꽃꽂이를 해 보자.



모든 존재는 마음의 차원대로 그 수준에서 각각 살아가게 마련이다. 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같은 중생간에도 더 높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의 뜻을 낮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중생은 보살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마음으로 사람이 지옥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바로 승천하기도 한다. 마음 한번 잘못 쓰는 데서 바로 구렁이에 빠질 수도 있고 구렁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생들은 마음씀씀이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산다. 천상의 복, 지옥의 죄가 다 한생각에 의해 좌우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수천만 가지의 층위가 있다. 그런데 사실 그 층위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곧 판념이다. 자기의 생각여해에 따라 마음의 차원이 달라지므로 한생각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한 나위도 없이 마음이다. 육신이 죽어도 죽어질 수 없는 마음, 자기가 지은 행위로부터는 그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마침내 깨달을 때에 가서야 해탈이 되

는 이 마음의 진화만이 가장 소중한 단 한 가지 일이다.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거꾸로 마음을 타락시키느라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고통과 기쁨은 마음에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를 들어 행복이란 잘나고 못나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잘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잘나려고 하는 마음까지 내려놓고 꼭 쉬어 보라. 참된 행복이란 잘난 기쁨 그 이상의 것이다. 양면을 초월한 중도의 기쁨이 잘나운 기쁨이다.

마음 도리를 알면 모든 게 화평하게 돌아간다. 신체적으로는 누구나 다 자기를 이끌어 갈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니 그렇고, 가정적으로는 주인공의 발현으로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게 되니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는 질서와 조화속에 얹은 방식을 지키는 이치가 밝게 이끌어지니 그렇다.

협찬: 주인공